

8월 4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8월 4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美증시, S&P 1천선·나스닥 2천선 동시에 뚫었다</p>	<p>뉴욕 증시가 3일(현지시간) 경기지표 개선에 힘입어 연중 최고점을 다시 경신했음. 미 정부의 자동차산업 부양책으로 7월 차량 판매가 크게 개선된 점도 투자심리를 북돋았음. 특히 나스닥 지수는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000선을 넘어섰고 S&P500 지수도 지난해 11월5일 이후 약 9개월만에 1,000선을 상향 돌파하는 등 뉴욕증시가 주요 저항선을 한꺼번에 뚫고 올라섰음.</p> <p>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전일대비 114.95포인트(1.25%) 상승한 9,286.56으로 장을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9.22포인트(1.48%) 오른 2,007.72를,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15.15포인트(1.53%) 오른 1,002.63을 각각 기록했음.</p> <p>뉴욕 증시는 개장 초부터 강세를 나타냈음. 중국과 유럽 증시가 제조업 경기 개선과 은행 실적 호전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이 영향을 미쳤음. 여기에 미국의 7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와 6월 건설지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자 지수는 상승폭을 확대했음. 아울러 중고차 현금보상(cash for clunkers) 프로그램으로 인해 포드를 비롯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판매가 증가한 점도 호재가 되었음.</p>
<p>제조업 경기 개선세 뚜렷</p>	<p>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7월 제조업지수가 48.9를 기록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음. 전월의 44.8에서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며,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상회했음.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는 46.5였음. ISM 제조업지수는 경기 확장과 수축의 기준선인 50을 밑돌았지만,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음. 이 지수는 지난해 12월 32.9로 저점을 찍은 뒤 상승해왔고 지수가 마지막으로 기준점인 50을 넘은 시기는 지난 2008년 1월임.</p>
<p>6월 건설지출 예상밖 0.3% 증가</p>	<p>미국의 건설지출이 지난 6월 전월대비 0.3% 증가한 9657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미 상무부가 밝혔음. 이는 지난달 지출이 0.8% 감소했던 것에 비해 큰 폭의 반전이며, 시장의 예상치를 대폭 상회한 것임.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는 0.5% 감소였음. 민간부문 프로젝트 지출은 0.1% 감소했고, 공공부문 프로젝트 지출은 1% 증가했음. 또 민간주택 프로젝트 지출은 0.5% 늘어난 반면 비거주용 민간 프로젝트 지출은 0.5% 줄었음.</p>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한달만에 배럴당 71달러로 급등	국제 유가가 한 달만에 배럴당 71달러대로 치솟았음.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 경기 개선으로 인해 석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었음. 3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9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2.13달러(3.07%) 상승한 71.58달러를 기록했다. 유가는 장 중 배럴당 72.10달러를 기록, 지난 6월1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음.
中, 제조업경기 호조에 14개월 최고	중국 증시가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가며 이날 14개월 최고치를 경신했음. 주말 중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제조업지수 호조에 이어 이날 발표된 CLSA 구매자관리지표가 12개월 최고치를 기로하며 제조업 경기 호전을 재차 강조. 미국 GDP 호재로 상품시장이 강세를 보인 것도 금속주름 끌어올렸음.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대비 1.48% 오른 3462.59에서 장을 마쳤음. 외국인 투자하는 B지수도 0.91% 오른 220.60을 기록. 바오산철강과 안간청강이 나란히 2% 이상 올랐고, 유난구리도 급등세를 탔음.
재정부 "8월 물가 2%대 회귀 가능성"	재정부는 3일 `7월 소비자물가 동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향후 소비자물가가 환율효과 등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전망이나 전년도 기저효과와 경기회복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 이와 관련, 이종화 물가정책과장은 "7월 1%대로 진입했던 물가가 2%대로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휴가철 8월 물가는 전통적으로 강세였다"고 말했음. 이어 "그러나 하반기 물가가 상승한다고 해도 2% 초반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환율이 1100원대로 하락한다면 물가가 다시 1%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7월에도 외환보유고 57억불 증가..2,375억 달러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시중은행에 공급했던 달러 회수, 달러화 이외의 통화 강세로 인한 달러 환산액 증가 등이 외환보유액 증가의 배경이라고 밝혔음. 또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왑 만기로 4.4억달러가 한국은행 금고로 들어온 것도 외환보유고를 늘린 요인. 한편 6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인도(2,646억 달러)에 이어 세계 6위 수준으로 나타났음.
삼성SDI, BMW 전기차 배터리 단독 공급	삼성SDI는 3일 보쉬와 설립한 합작사인 'SB리모티브(SB LiMotive)'가 독일의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 BMW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단독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음. SB리모티브는 독일 BMW의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최초 프로젝트인 'Mega City Vehicle'에 배터리를 단독으로 공급하게 됨. BMW의 'Mega City Vehicle' 프로젝트는 BMW의 기존 모델이 아닌, 전기자동차 전용 모델을 개발·출시할 계획으로 EV와 PHEV(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의 두 가지 형태로 출시될 예정.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